

연결한후 특히 리모컨 작동만으로 원하는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고 프로그램 전환도 한번에 가능해서 기존 제품들이 프로그램을 전환하려면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번의 리모컨 작동으로 바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들어 영화를 감상하다 TV를 보거나 윈도우 창으로 전환할 때 한번의 리모컨 작동으로 바로 프로그램 전환이 가능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접속해야 했던 기존 멀티

미디어 PC의 단점을 개선, PC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가정주부나 어린 학생들도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업그레이드가 간편하도록 본체를 서랍식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A/S가 필요할 경우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 모뎀을 통해 즉시 A/S를 받을 수 있는 원격A/S 시스템을 구축, 초보자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글 윈도우95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윈도95용 106키보드를 채택한 이제품은 17인치 모니터를 장착하고도 255만원(부가세 별도)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선보임으로써, 작은 화면에 비싼 가격으로 실패를 경험했던 기존 모니터 일체형 제품과 달리 96년 홈PC 시장을 본격적으로 창출할 기대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의 : 대우통신 홍보과 이정록 대리 /최병호 (전화 589-2053/4)



## 亞南, 국내최초로 南山타워에 디지털 TRS실험국 개설

- 주파수 900MHz 세계 2번째 -

亞南그룹(회장 金柱津)은 南山 서울타워에 국내 최초로 디지털방식의 주파수 공용통신(TRS-Trunked Radio System) 실험국을 개설하고, 정보통신부, 학계, 통신업계를 비롯한 관계사 사장단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7일 개통식을 갖고 시험통화에 성공했다. 이번에 설치하는 亞南의 TRS실험국은 미국의 주파수 공용통신 전문업체인 GEOTEK社와 공동개발해 1994년 6월 부터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실험국을 운영한 후 1995년 9월 부터 상용화한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국방성 산하 연구기관인 라파엘(RAFael)이 개발

한 첨단 디지털 무선통신인 주파수 도약방식(FHMA-Frequency Hopping Multiple Access)을 채택했다. 이번 시험통화는 美, 지오텍社에 이어 국내에서는 최초로 실시, 성공하는 개가를 올렸다. 亞南은 이를 위하여 지난 3년간 기술개발에 온힘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계기로 TRS전국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관련업체와 함께 동남아시아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亞南은 정보통신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국 지오텍社와 각각 50%씩 지분을 투자하여 자본금 80억원의 아남지오넷(주)(대표 金

和城)를 설립하고, 주파수공용통신의 운영, 무선통신장비 및 관련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의 수출입등을 사업목적으로 지난 12월 23일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아남그룹, 김이환 전무이사(본학회 홍보이사)는 한국 PR협회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